

NBA는 약물과의 전쟁 중 올해 세 번째 적발

미국프로농구(NBA)가 금지약물 문제로 흥역을 앓고 있다. 올해만 벌써 세 번째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NBA 사무국은 전날 애틀랜타 호크스의 존 콜린스(22)의 몸에서 성장 호르몬 펩타이드-2가 검출돼 25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2017년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전체 19순위로 애틀랜타에 지명된 콜린스는 5경기 평균 17득점, 8.8리바운드, 2블록슛으로 맹활약하고 있었다. 콜린스는 "NBA의 정책을 이해하고 나도 몸 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며 "항상 엄청나게 주의를 기울여 왔지만 나도 잘 모르는 불법 물질이 들어 있는 보충제를 섭취했다."고 항변했다.

콜린스의 도핑 양성 파문은 NBA가 더 이상 약물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과거 마약류가 문제였던 것과 달리 경기력 향상을 노리는 선수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다.

지난달 25일엔 초특급 유망주 디안드레 에이튼(21·피닉스 선즈)이 이노제 복용 적발로 25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노제는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주진 않지만 금지약물 복용을 감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돼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8월엔 베테랑 포워드 윌슨 찬들러(32·브루클린 네츠)가 금지약물인 이파모렐린 검출로 25경기 출전 금지 징계를 받았다. 이파모렐린은 체지방을 줄이고 근육을 늘리는 데 도움을 주는 성장 호르몬이다.

NBA는 세계반도핑기구(WADA)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반도핑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NBA 반도핑 프로그램의 수준 자체는 미국 프로야구(MLB)나 미식축구(NFL)보다 더 철저하다고 자부하고 있지만 그 빈도 자체가 너무 낮다는 게 문제다. 이번 시즌 NBA에서 3명이 도핑 양성 반응이 나오는 동안 도핑 테스트에 응한 선수는 13명에 불과했다. NBA에 450명 이상의 선수가 뛰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다.

벤투호 중동 원정에 '전세기' 뜬다

한국 축구대표팀의 파울루 벤투 감독(50)이 레바논 원정에서 '전세기' 카드를 꺼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이달 14일과 19일 레바논 베이루트와 아랍에미리트 연합(UAE) 아부다비에서 각각 레바논과 브라질을 잇달아 상대한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벤투 감독의 11월 A매치에서 눈길을 끄는 대목은 선수나 전술이 아닌 이동편이다. 벤투 감독은 10일 훈련 캠프로 마련한 아부다비로 입성한 뒤 2022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2차예선 4차전 레바논전 결전지인 베이루트를 다녀올 때 일반 항공편이 아닌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벤투 감독이 이번 중동 원정에서 전세기를 가동하는 것은 원정의 어려움을 어느 때보다 실감하고 있어서이다. 지난해 9월 한국 축구 지휘봉을 잡은 그는 홈(6승3무)과 원정(2승4무)의 성적 불균형에 시달리고 있다. 벤투 감독은 자신이 포르투갈을 이끌던 시절과 비교해 이동 거리와 시차, 기후 등 다양한 변수를 한꺼번에 극복하는 게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벤투 감독은 "유럽과 아시아는 확실히 차이가 있다"고 하소연했을 정도다.

벤투 감독이 코칭스태프와의 협의 끝에 내놓은 해법은 이동 시간과 체류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다. 올해 초 아시안컵을 준비할 당시 훈련지였던 아부다비의 크리켓스타디움에 훈련 캠프를 차리고 경기력을 끌어올린 뒤 경기 전날인 13일 베이루트로 원정을 떠나는 1박2일의 짧은 일정을 세웠다. 마침 아부다비에서 19일 브라질축구협회의 초청으로 친선전이 잡히면서 세울 수 있는 계획이었다.

대한축구협회도 이집트 항공에서 보잉 737NG 계열의 800기종(144석)을 임차해 이 구상을 뒷받침했다. 비용이 더 들어가지만 선수 전원이 비즈니스 좌석에 앉을 수 있어 컨디션을 최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다. 일반 항공편에 의존할 경우 레바논전을 치른 다음날 아부다비로 돌아올 수 있는 것과 달리 전세기는 당일 아부다비 캠프로 복귀가 가능하다. 자연스럽게 브라질전에 대비한 훈련 시간도 하루 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벤투 감독이 중동 원정을 성공리에 마칠 경우 전세계 활용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에 올려 퍼진 '아기상어'

한국의 한 유아 콘텐츠 제작업체 가 만든 '아기상어(Baby Shark)'가 올려 백악관에 올려 퍼졌다.

5일 '한겨레'에 따르면 전날 백악관에서 열린 2019 메이저리그 월드시리즈 우승팀인 워싱턴 내셔널스의 축하 오찬 자리에서 워싱턴 내셔널스 선수들이 야외 오찬장인 백악관 남쪽 잔디밭에 등장할 때 미 해병대 군악대는 '아기상어'를 연주했다.

아기상어는 2015년 한국의 유아콘텐츠 브랜드 '핑크퐁'이 북미권 구전동요를 각색한 어린이 노래로, 중독성 있는 '뚜루뚜루~' 후렴구로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시즌 중반 워싱턴에 합류한 이후 줄곧 극심한 부진했던 외야수 헤라르도 파라가 지난 6월 이 노래를 자신의 타석 등장곡으로 바꾼 이후 자신뿐만 아니라 팀까지 승승장구하자 팀을 상징하는 응원가로 자리 잡았다.

파라가 이 노래를 자신의 등장곡으로 선택한 건, 두 살배기 딸 알리아가 좋아하는 노래였기 때문이다. 아기상어의 기운에 힘입은(?) 파라와 슬럼프를 탈출로 팀 전체가 활력을 얻으며 워싱턴이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하자, 워싱턴 팬들은 파라가 타석에 나올 때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상어가 입을 크게 벌렸다가 닫는 모습을 표현한 '상어 손뼉'을 치며 응원하기도 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아기상어'에 대해 "매우 강렬하고 귀여운 노래"라고 말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2016년 대선 공약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고 적힌 빨간색 모자를 쓴 포수 커트 스즈키를 뒤에서 포옹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시절부터 대통령이 정기적으로 스포츠 경기 우승팀을 초청하는 것이 관례이다. 하지만 이날 오찬에는 25명의 선수 중 7명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항의 표시로 행사에 불참했다.



Jin Hyuk Lee
213-210-2898
735 E. 12th St., #308
Los Angeles

CA Insurance Agent #: 0G84555

자동차 주택 사업체 생명.



Allstate
You're in good hands.

이광연공인회계사

“재산관리와 증식을 도와드립니다”

32년 경력의 세무·회계·재정계획전문가

- 세금보고
- 투자상담(Mutual Fund - 뮤추얼 펀드)
- 은퇴계획(Retirement Planning)
- IRA'S IRA Rollover
- 401(K), SEP, SIMPLE IRA
- 자녀대학 학자금 계획(College funding Plan)
- 상속계획(Estate plan)
- 감사대행

Tel: (714)539-6444/5 Fax: (714)539-9261
9828 Garden Grove Blvd. #213, G.G, CA 92844
〈한미은행 옆, 김약국 2층〉